



## 2017년 세계경제, “공포의 해” 가 될 것인가?

2017. 02. 03 | 송종운\_새사연 연구위원 | menwchen@mac.com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65년 런던은 흑사병으로 5만 명 이상의 시민을 잃었다. 이듬해 1666년에는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대혼란이 뒤따랐다. 이 시기 아이작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과학의 위대한 기초를 세운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기적의 해(Annus Mirabilis)” 라고 부르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기적의 해” 는 시인 존 드라이든이 흑사병과 런던 대화재, 네덜란드와의 전쟁과 같은 고난을 극복한 영국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2017년 세계경제는 과연 “기적의 해” 가 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2017년 세계경제는 “공포의 해(Annus Horribilis)” 가 될 것이며, 세계시민들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다.

### 스케치 : 최근 세계경제의 사정

세계경제는 이미 “최장기 수준에서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 에 진입했다. 대단히 부정적인 진단이지만, 이를 부정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낙관적인 세계경제 전망은 우리시대의 것이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역사에서 볼 때, 부정적인 진단과 전망은 그리 낮은 풍경이 아니다. 1849년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의 빈곤과 극심한 불평등을 보며 경제성장과 이윤 그리고 분배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자들을 가리켜 “우울한 학문에 종사하는 존경하는 교수님들” 이라고 풍자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우리시대에 다시 경제학이 우울한 학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최장기 수준에서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 을 처음 제안하고 유행시킨 로렌스 서머스는 그 뜻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최장기 수준에서 경기침체가 의미하는 바는 경제가 항상 침체상태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을 통해 침체를 성장으로 변경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당한 정도의 금융 불안정을 대가로 치를 수밖에 없다”<sup>1)</sup>

좀 더 구체적인 우리시대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언젠가부터 경제 전망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조는 부정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다음해에 대한 경제 전망은 매번 다시 발표되는 수정 본을 통해 하향조정(downward revision) 되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2014년 이후 중국은 7%대 성장을 멈췄고 반복적인 하향조정을 통해 이제는 5%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 수준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마저도 유행처럼 되어버린 하향조정의 트렌트를 비껴가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짜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제무역이 감소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시대 경제의 핵심어는 부채와 위기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이 두 핵심어가 우리시대를 상징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되는 저성장의 원인과 우리가 어떤 체계 하에 놓여있는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가 계속해서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채 동학과 위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채, 즉 빚이 성장을 만들었고 한계에 다다르면 곧이어 위기에 빠져드는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부채 동화에 의한 성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성장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최종적 위기 바로 직전의 아름다운 시절(belle époque)이다. 따라서 부채동화는 단순히 빚이 많아졌고 벌어도 없는데, 돈을 빌리는 파렴치한 짓 수준에서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축적체제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부채-위기 축적체제가 만든 낯선 현상이다. 프랑스의 유력지 *Alternatives économique*에 크리스티앙 샤비뉴(Christian Chavagneux)는 이를 자본이 주도하는 “탈세계화의 힘(Les forces de la démondialisation)”라고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본의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국들 뿐 아니라 국제금융과 여기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나라들 간 호혜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적대적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지나가고 자본의 탈세계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시민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탈세계화의 폭압적인 질

1) Lawrence H. Summers, "Low Real Rates, Secular Stagnation, and the Future of Stabilization Policy", November 20, 2015 at the Bank of Chile Research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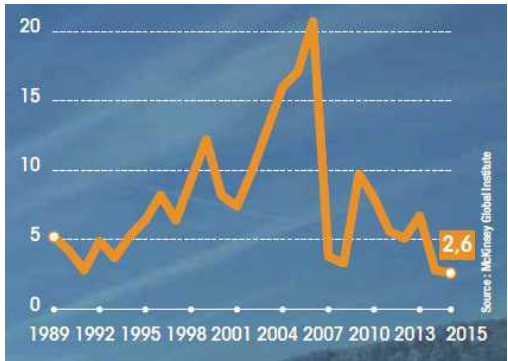
# 2017 전망 보고서

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노동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탈세계화의 위험에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노출되는 대상은 후진국과 신흥국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학력, 노동 숙련도, 성별, 노동조합 미조직 정도에 따라 겪을 피해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은 가장 나중에 비교적 약한 수준으로 그 피해를 겪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장 정도와 사회복지의 수준에 따라 시민들의 처지가 결정된다는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의 “지리적 시민성” 개념은 세계 시민이 처한 비극을 잘 조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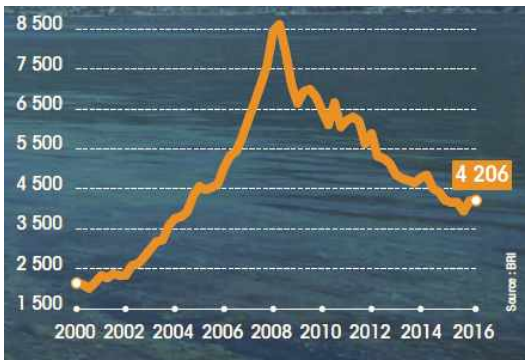
다시 샤비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샤비뉴에 따르면 글로벌 자본주의는 승승장구 했던 시기를 지나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화도 예년 같지 않다. 더 이상 국제금융과 국제무역을 호황을 누리며 전세계모든 나라가 이익을 볼 것 같지는 않다. 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쇠퇴하고 있다. 기업의 자회사 거래가 국제무역의 급격한 하락을 겨우 막아내고 있을 뿐이다. 국제 무역의 60%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간에 발생하는 거래이다. 이렇게 보면 쇠락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흐름은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 쪽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은행 간 대출의 규모는 2007년~2008년에 비해 약 33% 감소하였다. 유럽의 경우 이런 사정은 더욱 극적이다. 2015년~2016년의 대출규모는 2008년의 절반 수준이다.

국제금융거래 감소



세계총생산 대비 국제투자 부채, 은행활동의 비중

은행 간 대출 감소



유로지역 은행간 국외 대출

출처: *Alternatives Economiques*, 2017.1.31

세계경제가 이미 장기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은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였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지만 실상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경제성장이 예외적으로 높았던 전후 경제성장의 “영광의 30년”을 제외하고 나면 매우 예외적인 순간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 주세요.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거시 성장론의 대가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은 현재의 기술혁신이 과거 생산성 향상효과에 기여한 것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25년간 기술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고든은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솔로우의 생산성 역설”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는 “당신은 컴퓨터 세상이 된 것을 모든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단 한 곳 생산성 통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술발전이 생산성 향상, 곧이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의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국제자본의 이동의 세계총생산 대비 비중은 2006년 피크였을 때에 비해 무려 10분의 1정도의 수준이다. 자본은 탈세계화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였던 세계 시민사회는 이제 시민과 노동의 세계화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 6대 쟁점으로 본 2017년 세계경제 전망

### 1.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오바마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분야는 재정부양 및 규제 완화, 통상 및 외교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표방이 특징이 될 것이다. 주요한 쟁점 4가지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부양은 소득세 인상(39.6% → 33%) 및 법인세 인하(35% → 15%), 최고세율 인하, 인프라 투자(1조 달러 규모) 등이며, 둘째 규제완화는 석탄,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산업 규제완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폐지 등 대규모 규제완화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철회, 한미 FTA를 포함해 기체결된 FTA 재검토, 관세장벽 강화, 환율조작 조정 압박 등이 주요 쟁점이다. 넷째, 최근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폭력적인 이민제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것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불법이민자에 대한 지원 차단 등이다. 이 중 TPP 철회는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우선 과제로 공표된 바 있다.

트럼프의 재정부양 정책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호무역, 이민제한 등은 미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며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OECD 등은 재정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부양 효과를 반영하여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0.2%p(2.1%→2.3%) 상향조정(2016.11월)한 바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 강화, 이민제한 정책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부양 효과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될 경우, 1929년 대공황의 한 원인이었던 세계적인 차원의 경쟁적 보호무역정책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어 매우 심각한 세계경제 냉각기가 예상된다.

## 2. Brexit 협상, 이민정책 등 EU 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방

1958년 이후 EU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였으며, 정치 및 경제적 의미에서 지역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Brexit로 회원국의 EU 탈퇴가 가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부정적인 정치적 전염효과가 확산 될 수 있어 EU 결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리스 등 재정 취약국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일련의 유로존 당국의 정치적 무능력이 극대화 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협상, 2017년 중 예정된 주요국 선거결과 등이 향후 EU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유럽연합헌법 5조에 따라 협상중이며, 회원국간의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영국이 완전한 이민자 통제권을 가지고 EU시장 접근권을 유지하게 될 경우, 즉 체리 피킹<sup>2)</sup>에 성공할 경우 EU의 정치적 균열의 간극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EU 브렉시트 협상단 대표 바르니에는 협상의 4대원칙을 강조 하며 체리 피킹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미국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및 속도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금리인상에 어떤 의견을 비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도트 플롯(dot plot)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및 2019년에 각각 3회 정도(중간값 기준, 1회당 0.25%p 가정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9월 FOMC에 비해 2017년 인상횟수가 증가(2회→3회)하고 장기금리가 상향 조정(2.9%→3.0%) 된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7년도 2회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러 차례 공표한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 재정 부양 정책이 경기 및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

2) 체리 피킹(cherry picking): 27개 회원국의 단결, 영국의 탈퇴 통보 전 브렉시트협상 불가, 영국의 탈퇴 이후 회원국 시절보다 좋은 거래 불가, EU 4대 이동의 자유(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에 대한 존중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질 것이다. 반면 달러화 강세 및 시장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자금 여건이 위축되면, 인상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 최근의 통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과 일본의 화폐적 해법에 대하여

2000년대 일본의 양적완화는 특별히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013년 4월 일본은행은 양적완화에 더해 질적 완화까지 포함된 타개책을 내놓았다. 이 역시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다시 '장기국채 금리목표제'를 도입했다. 양적완화 정책이 주로 국채 거래의 '물량'을 중심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질적완화는 국채 거래의 '가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경시키기 위해 화폐적 해법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반영된 경제지표 자체를 변경시켜 마치 인플레이션 기대가 변경된 것 마냥 경제여건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화폐적 해법이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와이오밍 주의 캔자스시티 연준은행은 1년에 한 번 8월에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중앙은행 사람들과 경제학자, 그리고 금융업 종사자들을 불러 '잭슨 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14년에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주제는 '노동시장 다이내믹에 대한 재평가'였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에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사람들이 별로 초대받지 못했고, 미국 전미노조(AFL-CIO)의 수석 경제학자인 윌리엄 스프리그스가 초대받았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의 인물이 아니라 노동조합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민주노총의 정책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자문을 듣는 격이다.

미국 연준의 설립이념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가 물가안정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의 극대화, 그리고 마지막이 장기국채금리의 완만한 상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장기국채금리를 관리하는데 집중했다면 미국의 옐런은 고용의 극대화 목표 수행에 장기국채금리의 관리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장기국채금리목표제와 옐런의 실업률 중심 정책 모두 화폐적 해법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수익률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어 마치 경기전망이 밝은 것처럼 꾸며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선택한 화폐적 해법과 옐런의 화폐적 해법은 표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정책이다. 이 중 어떤 정책적 태도가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로 구성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로운 정책일지는 분명하다.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 4. 글로벌 저성장 기조 탈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대응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 순응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강화되고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하려는 각 국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 성장률의 소폭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준의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여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OECD, IMF(2016.9월) 등은 첫째 교역 투자의 부진, 둘째 생산성과 임금 상승률 둔화, 셋째 불평등 심화 및 경제개혁 차질 등을 주요 저성장 초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 5. NAFTA, TPP, 한미 FTA 등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트럼프는 중국(45%) 및 멕시코(35%)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민 고용 창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선포, 지재권 침해 인정 요구, 수출 보조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중단 요구 등 비판적으로 발언을 하였다. 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를 주장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 추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실제 그동안의 협상의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강력한 변화를 현실화시킬 것인가는 알 수 없다. 공화당의 경우 자유무역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중관계에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엄포에 그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격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6. 중국의 3대 리스크 관리

중국경제의 당면 과제로 3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안정 그리고 기업부채 관리가 그것이다.

철강, 석탄 등 과잉설비 산업 가동률이 60~70%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기업부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러한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보증을 하고 시중은행이 각 지방정부 신규발행채권을 매입하는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지방정부 신규 채권 발행은 지역 기업과 재정취약 지방정부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중국판 양적완화로 중국경제가 성장세 둔화로 인한 곤란을 재빠르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다른 리스크는 부동산이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일단은 중국정부가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당장 리스크가 실현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 및 적정 성장세 유지의 필요성 등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중국의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에 대하여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은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78년 제1차 개혁개방을 시작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야강 노동자(국영기업 해고자)와 농민공(도시로 이주하였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지도 주거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도시 외곽에서 빈민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시 이주 농민) 문제, 그동안 이끌었던 성장 효과의 소진 등의 문제가 산적하다. 이를 중국 당국은 2013년 제18차3중전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보인, 충칭모델의 전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중국의 내수전략에 의해 글로벌 무역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내수전략 성공여부는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 2017년 세계 경제가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2017년 세계 경제가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4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체질 강화. 둘째, 내수회복. 셋째, 수출경쟁력 제고. 넷째, 리스크 관리.

첫째,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세계적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구조조정이 어떤 태도로 진행될 것인가와 관련된 대응 마련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구조조정을 기존에 전개된 것과 같이 자본 친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노동 친화적이며 노동유연 안정성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결국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강화라는 미명아래 자본의 일방적인 수익추구가 관철되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 내수 회복에 대한 노동중심성이 논의되고 대안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이는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고 세력으로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련 있다. 내수는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로 구성된다. 우리사회는 지나친 소비위주의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다. 즉 삶을 지속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또한 기업은 고용 친화적인 투자를 꺼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나쁜 유형의 내수 회복은 생계비 부담을 배가하는 소비가 증가하고 노동배제적 투자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내수 회복이란 청년, 여성, 노인 고용이 증가하고 지나치게 비싼 사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가운데 형성되어야한다. 이런 조건하에 경기회복세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국민경제 이득으로 이어지는 틀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즉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통한 상품의 국제경쟁력확보는 국민경제의 성과가 국민들의 부를 증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환율, 수입조건 및 여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기업과도 상생적인 합의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의 바람직한 산업정책과 미래 먹거리 전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17년은 정치 리스크와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가 섞여 주의 깊게 상황을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해이다. 국가 수준의 컨트롤 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분이 가계부채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더 이상 개별 정책과 조치만으로는 경착륙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과 대응이 시급하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가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어떤 시각과 누구의 통제 하에 둘 것인가이다. 



# 2017 전망 보고서

saesayon.org

## 2017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분야	날짜	제목	작성자
노동	1월 9일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송민정
복지	1월 16일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최정은
국내외 정세	1월 23일	국내외 정세, 대전환을 탐색하는 2017	박세길
세계경제	2월 3일	2017년 세계경제, "공포의 해"가 될 것인가?	송종운
마을	2월 6일	추후 공개	강세진
부동산	2월 10일	추후 공개	권순형
보건의료	2월 13일	추후 공개	고병수
소득불평등	2월 17일	추후 공개	김창근
종합	2월 20일	추후 공개	송종운

---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 주세요.